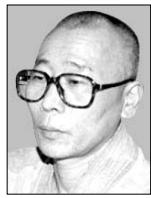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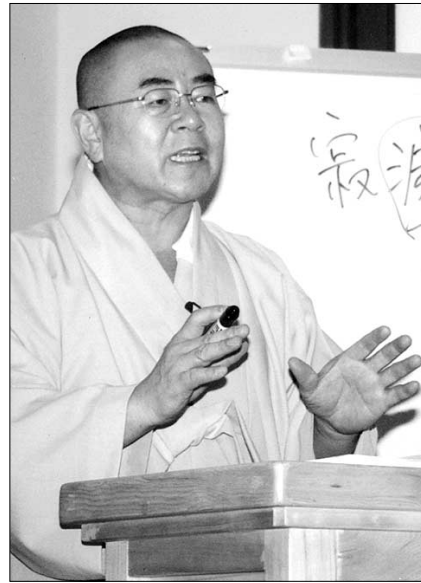
진실한 믿음이 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대승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승을 표방하는 종파라면 어떤 수행론에서든지 반드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며 염불수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효는 <무량수경종요>에서 정토에 왕생하는 정인(正因)은 보리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에서 말씀하신 정인이란 보리심(菩提心)을 말합니다. 무상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세간의 부(富)와 즐거움(樂) 및 이승(二乘)의 열반을 돌아보지 않고 한결 같이 삼신보리(三身菩提)를 원하는 것이니 이를 무상보리의 마음이라 부른다. 총괄적으로 표시하면 비록 그러하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을 따라 발심하는 수사

하신 것과 같다. 발심의 차원을 말하자면 공의 도리를 알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리발심,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사발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와 공에 대한 이해가 요원할 뿐 아니라, 종교적 신념도 일으키지 못하는 우매한 범부는 어떻게 발심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오늘의 현실에서도 반드시 해결하고 이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원효는 <아미타경소>에서, <경>에서 '가히 적은 선근부덕 인연으로는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한 것은 대보리심으로 많은 선근을 섣수하여 그것을 인연으로 삼아 정토에 왕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저 <보살지



<무문관> 강의를 중인 성본 스님.

직장인·교수 등 수강층 다양 대부분 20년 이상 참선 수행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는 그 당처(當處)에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이 모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불성이 전체작용되는 그 곳에 본래면목이 전부 제기된 것입니다. 가섭은 그러한 부처님의 참된 교화를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은 것입니다."

서울 성북동 산기슭에 위치한 한국선문화연구원(원장 성본, 02-765-6539) 법당.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만 이곳은 선어록 공부에 관심 있는 40여 명의 스님과 재가자들이 모여 성본 스님의 강의를 듣는다. 선종사부 오랫동안 연구하고 강의해 온 동국대 교수 성본 스님이 2002년 겨울부터 이곳에서 직접 선의 원리와 사상에 대한 해설은 물론 생활 속의 실천과 연관시켜 선어록을 강의하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동안 진행되는 강의는 <무문관>, <간화선>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어록이다.

7월 10일, 강의에 참석한 대중들은 직장인, 가정주부에서부터 대학원 석·박사, 교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몇몇 초심자도 있지만 대부분 수십년 간 참선하고 있는 스님과 불교학자, 재가 수행자들이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상주 관공사 주지 정관 스님을 비롯 매주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5일간의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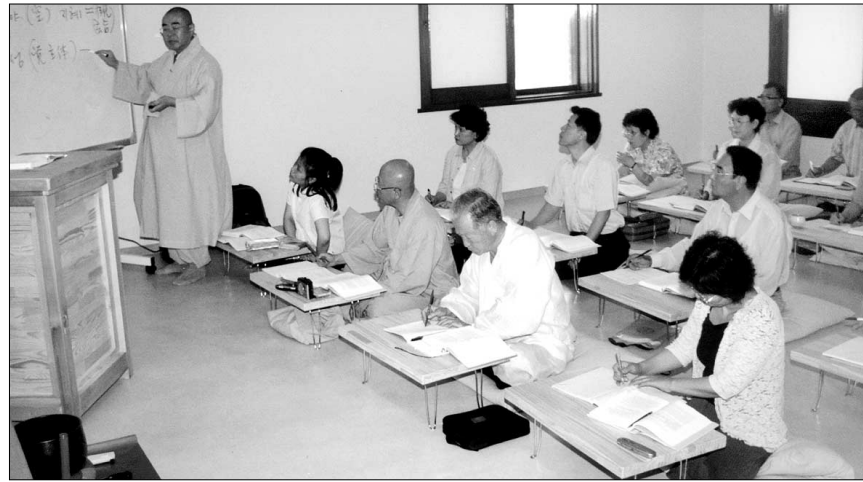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 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였고, 오늘날 중국 백림사와 보보사에서는 칠년에 깨치는 3일간의 충격적 수행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열의와 소망만 있으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해도 얻기 힘든 무심과 깨침을 5일간 체험해 보십시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론없는 수행은 위험, 수련없는 이론은 공허

빈마음수련원 (구, 대광사)

문의 : 033-435-8166 / master@binmaum.org www.binmaum.org / 한달인터넷주소 : 빈마음

“선어록 술술 풀어내니 막힌 곳 확~ 뚫려요”

한국선문화연구원 선어록 강의 현장



성본 스님의 선어록 강의는 본래심을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둔다.

지방에서 올라와 수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선어록이 단순한 강의차원이 아닌 마음 공부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대부분 20여년 이상의 참선수행 경험을 가

진 참석자들은 '이렇고' 화두 등을 듣고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 초심자의 마음으로 선 공부를 다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선어록을 공부하면

서 선에 대한 안목이 생겨 비로소 막힌 부분이 해결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송인성(49·선어록연구소장) 박사는 "경전과 어록에 대한 이해 없이 수행할 경우 편협함을 빠지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며 "바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 수행의 기준과 방향을 잡는 설법과 강의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1970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탄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성본 스님은 제법에서 정진하다가 일본 고마자와대학으로 유학해 89년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귀국했다. 현재 동국대(경주) 불교문화대학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스님은 선종사부 분야 최고권위의 선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육조단경> <임제어록>에 이어 <무문관> 등 선어록을 잇달아 역주한 성본 스님은 향후 10년에 걸쳐 <달마어록> <대조어록> <황벽어록> <백암록> <조담집> 등 '선어록 총서' 18권을 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불교개설> <좌선수행법> <소승선과 대승선> 등 15권의 '선불교 총서'도 틈틈이 발간할 방침이다. 스님에게 선어록 공부를 비롯한 조사선의 수행법에 대해 질문했다.

김재경 기자 gjkim@buddhapia.com

“평상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살자”

조사선 수행법 일문일답

▲선어록을 공부하는 이유는.

- 조사선의 선승들은 경전을 읽는 간경(看經)과 선어록을 읽는 간화(看話)로 불법의 대의와 다양한 지혜를 체득하도록 했고, 주지는 정기적인 상담법문(示談)으로 수행자의 안목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어록은 일상생활 속에서 전개된 구체적인 사건과 사례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불법의 정신과 사상을 생활 속에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조사선의 수행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 선은 깨달음의 평상심(平常心)으로 부처의 경지를 전개하는 즉심시불(卽心是佛)의 체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조사선의 기본적인 수행체계는 크게 좌선과 선문답(禪問答), 노동(作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종선(南宗禪)에서 일부 스님들은 좌선을 부정하는 듯한 문답을 남기기도 했는데, 조사선에서 좌선의 실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남종선에서 가르치는 좌선의 실천이란 일

체의 경계에 걸림없이(無礙) 하는 것입니다. 즉 밖으로 일체의 경계에 대하여 망념(妄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坐)라 하며, 자기의 불성을 깨달아 산란됨이 없는 것을 선(禪)이라고 합니다. 육조 스님의 '오염(汚染)없는 수정(澄淨)', 마조 스님의 '오염없는 평상심'은 좌선수행을 기본으로 하면서 좌선의 모양과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좌선인 것입니다. 또한 좌선하여 부처가 되려고 하는 조작심(造作心)이나 취사 선택의 분별심, 차별심, 생사의 번뇌심이 없는 본래심의 좌선 수행을 주장합니다. 조사선에서 좌선을 부정하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해도 좌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의 전제에 맞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선문답은 조사선의 독특한 기풍인데요.

- 선불교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을 주장합니다. '직지인심'은 스승이 질문하는 제자의 본래심(평상심)을 곧바로 가리켜 깨닫도록 하는 구체적인 선교육의 정신을 말합니다. 선불교의 특장적인 교육과 수행체계라고 할 수 있죠. 인간 생활의 매사 가운데 언어와 대화를 통해서 본래심을 상실하지 않고, 불법의 안목을 여법하게 전개할 수

있는 참선 수행이 선문답이라는 독특한 수행 방법입니다."

▲조사선에서는 '노동 속의 수행'도 강조하는데,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 조사선은 각자의 불성이 평등하고 청정하다는 경전의 말씀에 입각해서 천박한 노비나 행자의 신분은 물론 일상 잡무와 노동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서, 이를 불법수행의 새로운 기반으로 삼아 참선수행의 길로 만들었습니다. 선은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의 일상 생활속에서 참된 자기의 본래심을 상실하지 않고 진실(眞)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선'이 '생활 속의 수행'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겠지요.

- 조사선의 기본 정신은 평상심을 일상 생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의 생활 그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참선은 자기 자신을 참문(參問)하는 일입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본래심을 깨달아 지혜와 인격을 형성하여, 부처나 조사가 되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인 것입니다.

연기·공 이해 못하는 범부라도 참된 믿음이 일으키면 정토왕생

발심(隨事發心)이요, 둘째는 이치를 따라 발심하는 순리발심(順理發心)이다. 수사발심은 해야 할 일을 따라 발심하는 것이다. '번뇌가 무수하지만 모두 풀기를 원하고 선법이 무량하지만 모두 닦기를 원하고 중생이 무변하지만 모두 제도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일을 결정하여 기약하고 원하는 것이다. 처음의 원은 여래의 단덕정인(斷德正因)이요, 다음의 원은 여래의 지덕정인(智德正因)이요, 세 번째 원은 여래의 은덕정인(恩德正因)이다. 삼덕이 합하여 무상보리의 과(果)가 된다. 곧 이 삼삼은 모두가 무상보리의 인(因)이 되는 것이다. 인과 과가 비록 다르지만 넓고 긴 양은 나란하고 평등하여 남음이 없으니 포괄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저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발심과 필경은 둘이 차별이 없으나 이와 같은 두마음 가운데 앞의 마음이 어렵다. 스스로는 제도하지 못했지만 먼저 남을 제도하니 이러한 때문에 나는 초발심에 경례하노라'

경> '발심품'의 글과 같다. 또한 모든 보살이 최초로 발심하여 능히 일체의 보리분법(菩提分法)을 섣수하고 수승한 선근으로 삼수 제자가 되기 때문이다. 능히 일체 유정의 처소에서 삼업의 악행을 멀리하여 공덕이 상응한다는 것이다. 살펴 보건데, 보살이 처음 일으킨 보리의 마음이 능히 일체의 수승한 선근을 섣수하고, 능히 악업을 끊으며, 공덕이 상응(相應)하게 한다. 때문에 "적은 선근부덕 인연으로는 저 정토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보리심에 대한 이해가 갖지 못한 범부일지라도 염불법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면 그 마음에 보리심이 포함되어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대자비 방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염불수행은 발심의 모습에 따라 청명염불과 염불선으로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양산 정토원 원장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고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5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학교수) · 주명철(동국대학교수)
	· 불교상당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최종석(금강대학교수) · 박 중(동산불교대학교수) · 정병조(동국대학교수)
2년 교과목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김상원(동국대학교수) · 김상영(승가대학교수) · 표주스님(동국대학교수) · 차차석(동국대학교수)
	· 범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권기중(동국대학교수) · 정연스님(승가대학교수) · 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편·주변편·통산편) (100명 50명 50명) · 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경제학과(50명)	· 불교를 전공 신학대학교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신 3매	[불교학과] 2004년 6월 20일~ 2004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편)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경제반)	· 통산편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4년 8월 7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경제학과 : 2004년 9월 7, 8, 9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 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점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리민 센터 064) 743-4184
* 특선시양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신라천년의 숨결, 화랑이 나를 부른다-

선무도 청소년 화랑(여름) 수련회

골굴사 선무도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 (조선일보-2001.12)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사찰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맞음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 연 제 : 아 계 - 7월 ~ 8월(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안달)
▶ 대 상 : 초·중·고·대학생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단체, 위탁연수
* 동참금은 청소년 - 1일 2만원, 만달 60만원, 성인 - 1일 3만원,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예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후 하셨습니다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 수련내용 -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강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 자경론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 지도진 : 스님 · 사범 등 10명, 무용강사 4명(원희교사·전공자), 다도강사 2명
* 접수 및 문의 : Tel. (054) 745-0246, 744-1689 Fax. (054) 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 수련(학생)
6시	조경,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이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윤력(도량 청소년 및 정비직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공양
9시	오전 선무도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외톡(학생)
11시	108매 참외기도, 자아를 향한 서신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무 및 취침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대금강문·선무도 대학